유망업종 특화…광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중점

■광주시 신규 산단 조성 로드맵에 담길 비전과 과제

20년 이상 장기적 전략 수립
광주만의 강점 살려 조성 계획
그린벨트 해제 등 '넘어야할 산'

광주시가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이유는 광주지역 산단이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산단 조성 부지와 유망 산업(업종)을 정해 개발기본계획을 세운 후 행정절차를 거쳐 준공하기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산단 개발을 위한 로드맵 수립 시기가 되레 늦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광주시 내부에서는 나온다.

다만 신규 산단 조성 가능 부지가 대체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점, 정부가 사실상 지역 쿼터제를 적용해 신규 국가 산단을 지정하고 조성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이 난제다.

광주시는 그러나 20년 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복수의 신규 산단 조성 부지를 발굴하고, 광주만의 강점을 살려 신규 산단 조성 계획을 수립한다는 각오다. 산단과 함께 기업 맞춤형 대단위 공장 이전 및 신규 공장 설립 부지 발굴과 개발 계획도 수립해 기업이 떠나지 않고, 찾아오고 싶은 환경을 구축한다는 기본 구상도 세웠다.

◇광주 13개 산단 이미 포화 상태= 광주에는 현재 ▲조성 완료 산단 8곳 ▲조성 공사 진행 산단 4곳 ▲조성 절차 진행 산단 1곳 등 모두 13개의 산단이 있다.

본촌·송암·하남·소촌·평동(1·2차)·첨단(1·2차)·진곡산단 등 8개 산단은 1983~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됐는데, 조성 기간은 짧게는 5년부터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들 8개 산단 면적의 합은 2467만3000㎡(747만6000평)로, 100% 분양이 완료됐다.

공사가 진행 중인 빛그린·도시첨단·평동3차·에너지밸리 등 4개 산단은 오는 2021년 조성이 마무리되며, 사실상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그나마 일부 산단에 공장 용지가 남았지만 산단별 업종 제한 등 제약이 있어 공장 용지를 문의하는 기업에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할 수 없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2021년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적용한 완성차공장이 들어설 빛그린산단(광산구)을 포함,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4개 산단 면적의 합은 444만3000㎡(134만6000평)다. 빛그린산단은 벌써부터 협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광주 남구 일원에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의 경우 15%가량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산단 입주 수요조사에서 한국전력 협력업체 등 업체들에게서 분양 문의가 잇따라 사실상 분양 완료된 것과 다름 없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오는 2025년 조성될 첨단3지구산단 역시 면적은 110만1000㎡(33만3000평)로 대단위 공장 유치 등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유가 없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신규 산단 밑그림에 어떤 비전 담기나= 광주시의 '신규 산단 조성 계획 수립'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광주의 강점과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유망 산업(업종)에 특화한 산단을 만들고, 기업 맞춤형 산단을 조성해 기업이 오고 싶은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비전을 산단 조성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담아내겠다는 각오다. 용역업체를 통해 산단 조성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국 산업발전계획 조사, 유치 희망 업체 등 현장 조사 등을 거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에 대단위 공장을 운영 중인 기업과 광주에 신규로 공장을 세우려는 기업을 위한 맞춤형 대단위 공장 입지 검토와 개발 계획도 이번 용역에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논의가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비롯한 대규모 공장 이전 및 신규 설립 부지를 물색하고, 기업이 원할 경우 맞춤형 공장 부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호타이어 측은 광주공장 이전에 대한용역을 진행 중인데다, 현 공장부지의 가치를 높여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부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산단 조성에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국가산단 조성의 경우 개발계획 수립, 관계기관 의견 청취, 관계중앙행정기관장 협의, 국가산단 지정 요청, 산단 지정 및 고시,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사업 시행, 착공, 준공 등 조성까지 길고 지루한 작업의 연속이며, 일반 산단 조성 역시 만만찮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다.

특히 광주의 경우 신규 산단 개발 가능 지역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이를 해제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광주시 내부에서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신규 산단 조성 인허가 과정에서 사실상 지역별 쿼터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광주시 의지만으로 속도감 있게 신규 산단을 조성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도시계획 전문가들에게서는 "산단 분양이 대부분 완료됐다는 것이지 실제 공장 가동률은 그렇지 않다"며 "당장 광주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줄서고 있지 않다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산단을 개발하려는 작업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경기 김포시 월곶면 (주)에스비비테크를 찾아 브리핑을 듣고 생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 회사는 수입에만 의존하던 정밀제어 감속기의 자체 생산에 성공하고 자동화용 구동장치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부품업체 방문 '기술 국산화'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경기 김포시의 정밀제어용 생산 감속기 전문기업 SBB테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 경제보복 사태 후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SBB테크는 반도체·LCD 장비 및 로봇 정밀제어 등에 필요한 감속기와 베어링 등을 생산하는 부품 업체다.

이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 중 감속기는 일본이 분류한 전략물자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 감속기의 핵심 부품인 베어링은 전략물자에 포함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특히 이제까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 오던 '로봇용 하모닉 감속기'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업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감속기 제작 공정을 차례로 살펴보며 업체 관계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SBB테크처럼 기술력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에는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자신감을 갖고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마스터즈수영대회 등록·숙박비 수익만 12억여원

선수촌 상권 등 지역경제 도움

세계 각 국의 수영 동호인들이 자비로 참가하는 '2019 광주세계마스터즈 수영선수권대회'의 수익은 얼마나 될까?

참가자들은 대회 엔트리 등록을 위해 등록비를 납부해야 하고, 선수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숙박비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등록비와 숙박비 등의 고정 수익은 12억여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대회 참가 선수와 코치 등 등록 인원은 총 5672명이다. 이 가운데 선수 4032명은 약 7만9000원씩을 등록비로 납부했고, 코치와 가족 등 1640명은 4만8000원씩 납부했다. 이를 감안하면 선수와 가족들의 등록비로 약 4억원의 수익이 창출됐다.

또 선수들은 1인당 2~5개 경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경기 엔트리 숫자는 무려 1만700명이다. 특히 경영 엔트리만 1024팀 9502명에 이른다. 경영 참가비는 1인당 2만1600~4만8000원(계영)으로 경영 경기에서만 2억 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

또 아티스틱 수영은 2만1600(솔로)~4만3200원(팀)으로 종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1인당 약 5만 원의 참가비를 적용하면 93경기로 500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

오픈 워터 수영은 2만9400원의 참가비로 약 3000만원, 다이빙은 1인당 2만1600~4만3200원으로 1200여만원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약 2000여명이 머물고 있는 선수촌의 경우 1인 1박에 9만~12만원의 숙박비가 소요돼 평균 10만원으로 산출할 경우 한 선수당 3일만 머물러도 총 6억원의 수익이 추정된다.

경기장 내 마켓스트리트와 경기장 주변 상가, 선수촌 이외에 광주 숙박업소에도 선수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조직위원장은 "마스터즈 대회는 경쟁보다는 화합과 친목이 이뤄지는 축제"라며 "식당과 기념품 업소, 관광상품 등의 매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문화예술 유산 더해져 더 빛난 미디어아트

김은영의 '그림 생각'

(277) 광주 미디어아트

여러 전문가들이 언급했듯, 오늘날 예술가들은 점점 더 첨단기술에서 표현수단을 찾고 있고, 과학자들은 점점 더 예술에서 새로운 기술을 위한 영감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영화와 TV의 등장, 인터넷과 아이폰 등 오늘날 과학기술과 정보기술의 혁명으로 새로운 이미지 사회가 펼쳐지면서 미디어 아트가 등장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문명사적 흐름에서 필연적일 것이다.

지난 7월22일 런던 한국문화원에서 2019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광주전인 〈Circulation Metaphor〉가 개막돼 영국을 비롯한 미술인들이 광주미디어아트 매력에 주목하고 있다. 빛의 도시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아트 작가들이 단순히 디지털 미디어의 기술적인 속성을 작품의 매체로 잘 활용했다기보다 이 지역의 특성인 문화예술의 풍부한 유산의 토대가 더해져 더욱 깊이있는 미디어아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와 문화, 인류문명의 최전선이라 할 영국 런던에서 광주시립미술관이 광주의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전시회를 주최한 것은 디지털 미디어와 문화예술의 융합으로 다가올 4차 산업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하는 것에도 의미가 크다.

런던전에 참여하고 있는 6명의 작가 중 정정주 작가(1970년~)의 '소쇄원'(2018년 작)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정원양식을 지닌 담양의 소쇄원을 작품으로 시각화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은다. 소쇄원 계곡을 포함한 풍경과 그 풍경 속에 위치한 두 정자가 청자기법의 도자로 제작되고 모형 곳곳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되어 모형 속 세계와 이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자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프로젝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정정주 작 '소쇄원'.

어찌보면 현대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인 감시카메라 형식을 작품으로 승화시켜 관람자의 참여를 재미있게 유도하고 그러면서 상호 소통을 이끌어 내고 있어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게 한다.

〈광주시립미술관연구관·미술사박사〉